

안전수기

안녕하세요, 저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53세의 여성입니다.

바깥-제가 일하는 조선소에서 발생하였던 안전사고에 대해 글을 쓰고자 합니다.

작업 휴식시간을 취한 후 작업에 임한지 5분정도 되었을 때 "평"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창문
을 통해 밖을 보니 검사대기중인 블록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. 모두들 블록작업장소로 뛰어
나서 블록에서 외판 곡직을 하던 작업자가 머리카락과 얼굴이 모두 그을린 상태로 내려오 고
습니다.

조선에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적이 있었기에 가위와 얼음을 가져오라하여 응급처치를 하고 구
급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.

이번 사고는 용단작업자가 산소가스 충전여부 확인을 위해 밸브를 열어본 후 잠시 자리를 비
웠고 사상작업자가 이를 모르고 작업을 시작하여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.

병원에 대신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, 이번 사고로 작업자간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
닫게 되었습니다. 만일 2인 1조 작업을 하였거나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
을 사고라고 생각합니다.

군산 심상순님.

안전기술은 독자분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을 기다립니다.

가족과의 추억, 연인과의 추억, 동료와 추억, 지인들과의 추억 등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한
장의 사진과 간단한 사연을 적어 e-메일로 보내주십시오.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
내드립니다.

보내주실 곳 : anjunj@safety.or.kr 안전기술 편집부

주의사항

- (1) 사진 해상도는 가급적 크게 찍어서 보내주세요. (600kb 이상)
- (2) 스캔 받으신 사진이면 크게 스캔을 받아서 보내주세요.
- (3) 메일 제목에 "한 장의 추억"을 적어 주세요.
- (4) 받으실 곳 주소와 연락처(휴대전화번호 등)를 꼭 적어주세요.